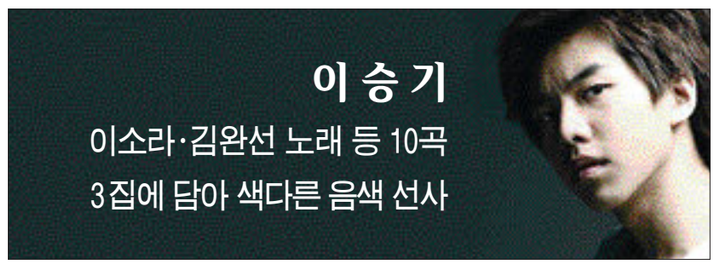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리메이크 '성별파괴 바람'

'리메이크에도 공식이 있다?'

이미 한 번 소개되었던 곡을 다시 부르는 리메이크 곡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성별파괴'를 선언한 가수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가수가 이승기. 지난달 12일 발매한 3집 앨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는 이소라의 '제발'을 포함해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 김완선의 '나만의 것' 양파의 '아디오' 등 여가수들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10곡이 담겨있다.

타이틀 곡인 '제발'은 원곡과는 또 다른 남성이 가진 감성을 전달한다. 애절하고 안타까운 원곡의 느낌은 살리되 이승기의 호소력 깊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음반은 발매 후 열흘도 안돼 음악 사이트 벅스(bugs.co.kr)가 집계하는 인기 가요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하며, 10월 첫째 주에는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곡과는 다른 감성 전달 '신선'

남자 가수가 여자 가수의 노래를 부르거나,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의 곡을 리메이크 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에는 시원시원하고 남성적인 샤우트 창법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 김경호가 여성 그룹인 핑클의 '나우'(NOW)를 리메이크해 관심을 끌었다.

발라드 가수 이수영은 조덕배의 '꿈에'를 보사노바 풍으로 다시 불러 호평 받았고, 브라운 아이즈 출신의 가수 나얼은 박선주의 '귀로'와 이상은의 '언젠가는'을 R&B 스타일로 재해석한 곡을 내놓기도 했다. 박효신은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을 특유의 음색으로 리메이크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런 성별 파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승기처럼 아예 앨범 전체를 이성 가수의 곡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마야의 '소녀시대' 앨범은 봄여름가을겨울의 '아웃사이더' 이승철 '소녀시대'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등 14곡 전부 남성 가수의 곡이 원곡이다. 리즈의 'MEMORY' 앨범도 이문세의 '난 아직 모르잖아요'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윤상의 '이별의 그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등 전체 14곡 중 7곡이 남성 가수의 곡이다.

지난 7월 두 번째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한 서영은 역시 일기예보의 '좋아좋아' 동물원의 '널 사랑하겠어' 이상우의 '그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등 귀에 익숙한 남자 가수들의 곡을 다시 불렀다.

리메이크 난무…회의적인 시각도

인기 가수들의 리메이크 행렬이 '성별파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리메이크'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리메이크 곡이 지나치게 난무하는데다, 홍보비 절약 등 가요계의 안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때문에 남자 가수가 여자 가수의 곡을,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의 곡을 부르는 등 형식상의 시도가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중음악지 'sub' 객원필자인 신승렬씨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리메이크가 이슈가 되지 않는 많큼 성별파괴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이라며 "최근 나오는 리메이크는 예전에 떴던 곡을 재해석 없이 상업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그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성시경 5번째 앨범 발표

발라드 16곡 담아

나직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성시경이 다섯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더 발라드'라는 앨범의 타이틀처럼 16곡의 발라드를 들고 돌아온 그는 이번 앨범에서 훨씬 깊고 풍부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타이틀 곡은 윤종신이 작곡한 '거리에서'로 잔잔하면서고 성숙한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다. 김형석, 하림, 이승환 등 정상급 뮤지션이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높였다. 성시경이 직접 작곡한 곡 '사랑할 땐 몰랐던 것들'을 포함해 발라드 가수로서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심한 '소몰이 창법'에 느끼함을 느낀 사람이라면 오랫만에 듣는 성시경의 담백한 사랑 얘기가 더욱 반가울 듯 하다.

〈서울음반·1만1천원〉

KBS 내달 가을개편 '코미디 왕국' 재건 꿈꾼다

비공개 녹화 코미디 다시 등장

'폭소클럽'도 8개월만에 부활

'개그콘서트'를 통해 1999년부터 지상파 코미디 장르를 주도해 온 KBS가 11월 가을 개편을 통해 '코미디 왕국'의 재건을 꿈꾼다.

1999년 종영된 '코미디 세상만사' 이후 처음으로 정통 비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3월 막을 내린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도 부활한다.

11월 개편 후 평일 밤 9시대에 선보일 2TV '엔돌핀 업'(가제)은 관객과 무대가 없이 비공개로 녹화가 진행된다. 빠른 호흡의 공개코미디와 달리 콩트, 야외촬영, 복고풍 코미디 등을 선보이며 '개그콘서트'의 김석현 PD가 연출자로 투입된다.

'엔돌핀 업'에서는 7~8개의 코너가 선보이게 된다. 바보 대통령과 내각이 스튜디오에서 정치를 풍자하는 코너, 엉뚱한 초능력을 가진 이가 야외에서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미스터 빈',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던 합창단이 벽을 뚫고 나가 야외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공간 이동' 코너 등이 준비되고 있다.

김제동, '김샘' 김홍식, '블랑카' 정철규 등을 배출하며 국내 대표적인 스탠드업 코미디 프로그램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폭소클럽'도 재단장 후 8개월 만에 다시 선보인다.

일단 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코너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폭소클럽'에서는 최양락이 진행하던 '올드보이' 코너도 새롭게 재구성해 무대에 올린다. '왕년의 인기 개그맨'이 주로 출연하던 이 코너에 예전 인기 스타들을 출연시킬 예정이다.

김구라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등장해 꾸미는 '동화 읽기' 코너도 전파를 타게 된다.

'동화 읽기' 코너에서 아들과 함께 출연하는 김구라.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타짜	18만9천	495만5천
2	라디오 스타	8만1천400	122만8천400
3	월드 트레이드 센터	5만6천	20만1천
4	레이디 인 더 워터	3만1천	8만5천800
5	가문의 부활	3만	334만9천100
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만3천400	312만400
7	앤트 불리	1만100	27만9천400
8	BB 프로젝트	7천200	39만7천400
9	아연	4천400	42만9천300
10	잘살아보세	1천600	27만4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주몽	MBC	43.9
2	소문난 칠공주	KBS2	38.9
3	열아홉 순정	KBS2	32.7
4	내 사랑 못난이 2부	SBS	30.0
5	상상플러스	KBS2	25.3
6	아시안컵축구예선 〈대한민국:시리아〉	MBC	23.9
7	내사랑못난이 1부	SBS	23.4
8	사랑과야망	SBS	22.8
9	대조영	KBS1	21.7
10	연개소문	SBS	20.8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엑스맨 : 최후의 전쟁	스릴러
2	13구역	액션
3	다빈치코드	미스터리
4	짝패	액션
5	한반도	드라마
6	미노타우르:신의 부활	액션
7	비열한 거리	액션
8	포세이돈	어드벤쳐
9	원탁의 기사	코미디
10	스승의 은혜	임대웅

〈자료제공:씨네타운〉

가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운다	손호영
2	소리쳐	이승철
3	제발	이승기
4	아이스크림	MC몽
5	아이 러브 로큰롤	코요태
6	더 데이	씨야·브라운아이드걸스
7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요	김현철·거미
8	사랑, 참…	홍경민
9	거리에서	성시경
10	드림 오브 마이 라이프	신승훈

〈자료제공:벅스뮤직〉